

지역 소식통

고창군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시행 눈길

고창군보건소가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앱을 통해 건강을 관리해주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을 시행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과 ICT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기반의 건강서비스다. 건강 위협요인이 있는 대상자에게 6개월간(6~11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참여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건강위험요인(혈압, 공복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을 1개 이상 가지고 있는 고창군 거주자가 해당된다. 단, 질환자 및 약물복용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소 전문팀의사, 코디네이터,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이 스마트워치 형태의 활동량계와 연계된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맞춤형 신체활동 관리, 식습관 관리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 성송면, 하상굴착 실시 가뭃극복 나서

고창군 성송면(면장 황일선)이 지난 20일 가뭃 피해극복을 위해 사습한 지역인 과치리 주민전 20여곳의 하상굴착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봄 강수량이 극히 저조해 농작물 가뭃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성송면에서는 과치마을, 양실마을, 주산마을 등의 하천에 하상굴착으로 하상 유공관설치, 물웅덩이, 물길 정리 등을 통해 농업용수 확보에 적극 나섰다.

이번 하상굴착으로 물 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특히 주산마을 앞에는 수중보 설치를 건의해 물 걱정 없는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황일선 성송면장은 "가뭃 피해지역을 우선적으로 하상굴착을 실시해 물을 공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면에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및 전기모터, 송수호스 등 양수장비 등을 대어해 가뭃극복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공동육아 나눔터' 인기

정읍시, 육아 품앗이...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지역사회 참여 돌봄 공동체 조성

정읍시가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운영 중인 공동육아 나눔터가 이용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로그랩실, 수유실, 기저귀 갈이대 등을 갖추고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9시 30분에서 오후 3시까지 운영되며,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공동육아 나눔터에서는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시설 내에 연령별 장난감과 도서를 비치해 자녀들의 놀이 활동을 지원한다.

또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음악 놀이와 체험 여행 등 부모참여형 프로그램을 비롯해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관련해 가족센터(센터장 임내규)는 공동육아 나눔터 부모와 자녀들을 대상으로 지난 21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개별 체험을 진행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사용한 농기계 중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를 농업인들에게 경매 방식으로 판매해 호응을 얻었다.

'노후 농기계 저렴한 가격으로'

정읍시 농기계센터, 불용 농기계 공개 경매 농업인 '큰 호응'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사용한 농기계 중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를 농업인들에게 경매 방식으로 판매해 호응을 얻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9일과 10일 2차례에 걸쳐 내구연한을 초과했거나 수리 비용이 과다해 불용 처리한 농기계 33종 95대에 대해 공개 경매를 진행했다.

이번 농기계 매각은 고가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경매는 사전 설명과 희망자의 물품 확인 뒤 감정평가금액 이상 최고가액을 제시한 응찰자에게 낙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183명의 농업인이 참여했으며, 1차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에서 관리기 등 47대, 2차는 북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굴삭기 등 24대 총 26종 71대의 농기계가 낙찰됐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을 위한 증빙서류(신분증 인감영사 등)를 제출하고 대금을 납부한 후 농기계를 인수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베트남과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 체결

내년 상반기 이후 입국 예정

부안군은 23일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를 위해 베트남 카마우성 터이빙군 지자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으로 진행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계절근로자 선발과 파견 근로조건 등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내년 상반기 이후 두 도시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의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농번기 동안 3개월 또는 5개월의 단기 간으로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해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농가에서 계획적으로 영농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김종택 부안군수 권한대행은 "최근 많은 농가들이 코로나19로 노동 인력



부안군은 23일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를 위해 베트남 카마우성 터이빙군 지자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의 국내외 이동제한에 따른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지원으로 일손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김성수 부안군수 후보, 선심성 선거 개입 대응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안군 관변단체들이 선심성 선거에 개입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들 관변단체들은 더불어 민주당 당원 모집에 이어 선거철을 맞아 선심성 사업을 남발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재)부안군문화재단은 부안상설시장을 깨끗한 시장을 만든다는 목적 아래 '관매대 지원사업'을 공고해 선거개입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한편 이 후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일인 23일 오후 4시부터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와 국회의원도·시의원들과 함께 정읍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관매대 교체사업은 오는 7월 중순까지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어서 선거용 선심사업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상인들은 "겨우 매대 몇 개는 90% 지원을 하지만 실제 예산 범위를 벗어나면 전액 자부담이라 쥐꼬리 생색내기"라며 군은 올 3월 생활지원자들에게 12만원 이내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한 후 30만원 공약을 내걸었는데 지금까지 12만원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고 갑자기 30만원으로 올려주겠다고 선심을 쓰고 있다.

또한 소형어선 어구 지원사업 등 대부분 선심성 사업과 각종 부처 등 관변 단체 등이 앞장서 선거와 관련된 지원에 나서고 있어 공명선거를 왜곡하고 있다.

한편 무소속 김성수 부안군수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관변단체의 선거개입을 엄중히 규탄하며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후보, '노무현의 진심 계승' 강조

이학수 더불어 민주당 정읍시장 후보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를 맞아 '뫄타 이론' 노 전 대통령의 꿈을 우리가 계승하여 완수하자고 말했다.



이 승리할 것이다'고 피력했던 대통령을 기억한다"면서 "오는 6월 1일 선거에서도 정읍시민들의 역사적 선택을 통해 반드시 민주당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읍시민과 당원들이 하나가 될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 중심의 정치를 강조했던 노무현의 꿈도, 시민과 함께하는 정읍의 발전에 대한 이학수의 진심도 모두 이루어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23일 오후 7시 정읍시 연

지아트를 광장에서 열리는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3주기 정읍시민 추모제 및 기념공연'에도 참석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음의 고향인 민주당의 단합과 정읍시를 향한 이 후보의 진심을 정읍시민들에게 호소할 예정이다.

한편 이 후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일인 23일 오후 4시부터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와 국회의원도·시의원들과 함께 정읍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